

UNHCR
ANNUAL
REPORT

2024 연례 보고서



CONTENTS

- 03 들어가는 말
- 04 2024 세계 강제실향 동향
- 06 함께 만든 2024
- 08 소중한 후원으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
- 16 2024년 강제실향, 끝나지 않는 위기의 기록
- 18 주요 긴급구호 활동 보고
- 22 여러분의 후원이 만든 변화
- 26 한국대표부 주요 활동
- 28 재정 보고
- 32 마음을 나누는 네 가지 방법

Cover Story

차드의 국경 마을 아드레^{Adre}에 새로 도착한 수단 난민 가족.

2023년 4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수단에서 차드로 피난한 난민은 2024년 10월 기준 7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 4만 명의 작은 국경 마을이었던 아드레는 23만 명 이상의 난민을 보호하는 대규모 난민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아드레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 UNHCR/Andrew McConnell

발행인 김새려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25년 7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더디앤씨



**2024년은 복잡한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모순이 공존한 해였으며,
돌이켜보면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 있어,
나아가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의 전환점이
되었던 해일지도 모릅니다.**



© UNHCR/Samuel Otieno

분쟁, 인권 침해, 박해에 기후 충격과 경제 위기까지 더해지며, 강제실향과 무국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 및 강제실향 위기국으로 떠올랐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목을 덜 받는 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서도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고, 기존 위기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복잡한 과제와 절박한 인도주의적 필요 앞에서 흔들림 없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130개국 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긴급구호 활동을 계속하고, 긴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난민과 무국적자가 국가 시스템과 개발 계획에 통합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인도주의 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는 각국 정부, 지역 파트너,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는 강제실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난민과 국내실향민 모두의 자발적 귀환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난민의 귀환은 약 1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 국내실향민은 820만 명으로 61% 증가했습니다. 또한, 제3국 재정착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2024년에 188,822명의 난민 재정착을 보고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국적 문제 해결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47,200명이 국적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확인받았으며, #IBelong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국적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to End Statelessness)’이 출범했습니다.

2024년은 다시 한번, 인도주의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발 분야, 국제 금융기관, 유엔 기구, 민간 부문, 시민사회, 각국 정부, 그리고 난민 당사자들까지 이 모든 주체가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난민이 그들의 재능과 역량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에서 난민 선수단이 보여준 감동적인 활약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심각한 재정 압박과 대외적 변화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우리가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국제법과 원칙, 그리고 실질적 행동에 기반해 난민을 보호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 강제실향 위기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례 보고서를 읽으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숫자 뒤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 뒤에는 우리가 함께 내린 선택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보호와 해결을 위해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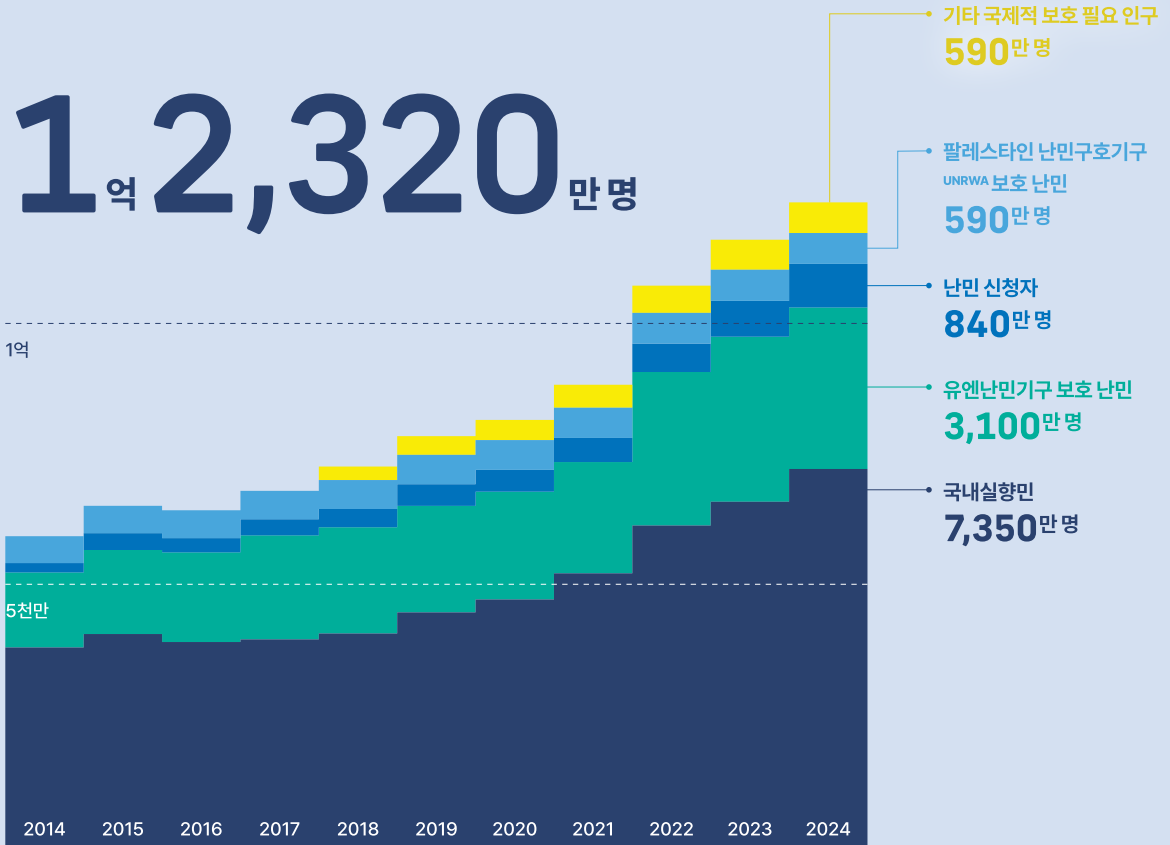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24 세계 강제실향 동향

**본 페이지에 반영된 모든 수치는 2024년 말 기준

박해,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해 강제로 피난한 사람은 2024년 말 기준 1억 2,320만 명에 달했습니다.



4,270만 명

2023년 말 대비 1% 감소

난민

국내실향민

2023년 말 대비 9% 증가

7,350만 명

840만 명

2023년 말 대비 22% 증가

난민 신청자

세계 난민 및 국제적 보호 필요 인구의 73%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 체류

세계 최빈국이 세계 강제실향민의 23%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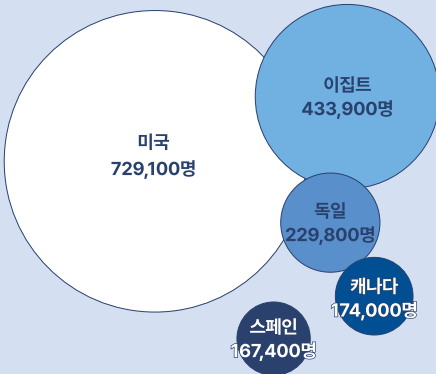
73%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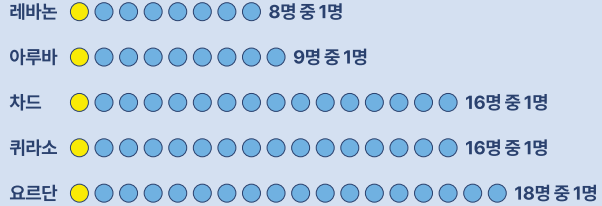
난민 및 국제적 보호 필요 인구의 67%는 출신국 이웃 국가 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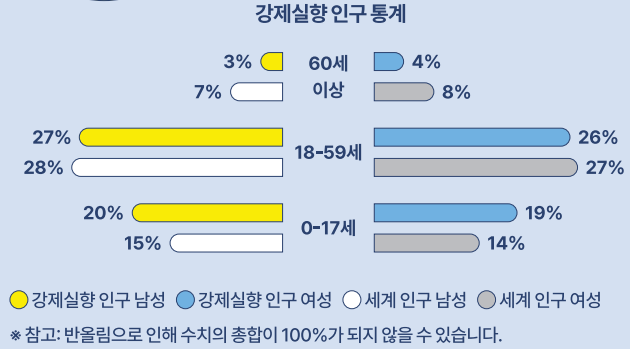
310만명



레바논 국민 8명 중 1명



40%



2024년 주요 성과

재정착 난민 **188,800명**

총 18만 8,800명의 난민이 제3국에 재정착했으며, 유엔난민기구는 20만 3,800명의 난민이 제3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재정착을 신청했습니다.

무국적자 국적 및 시민권 취득 **47,200명**

4만 7,200명의 무국적자가 국적을 취득하거나 시민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귀환민 **980만명**

난민 160만 명, 국내실향민 820만 명 등 총 980만 명이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함께 만든 2024

전 세계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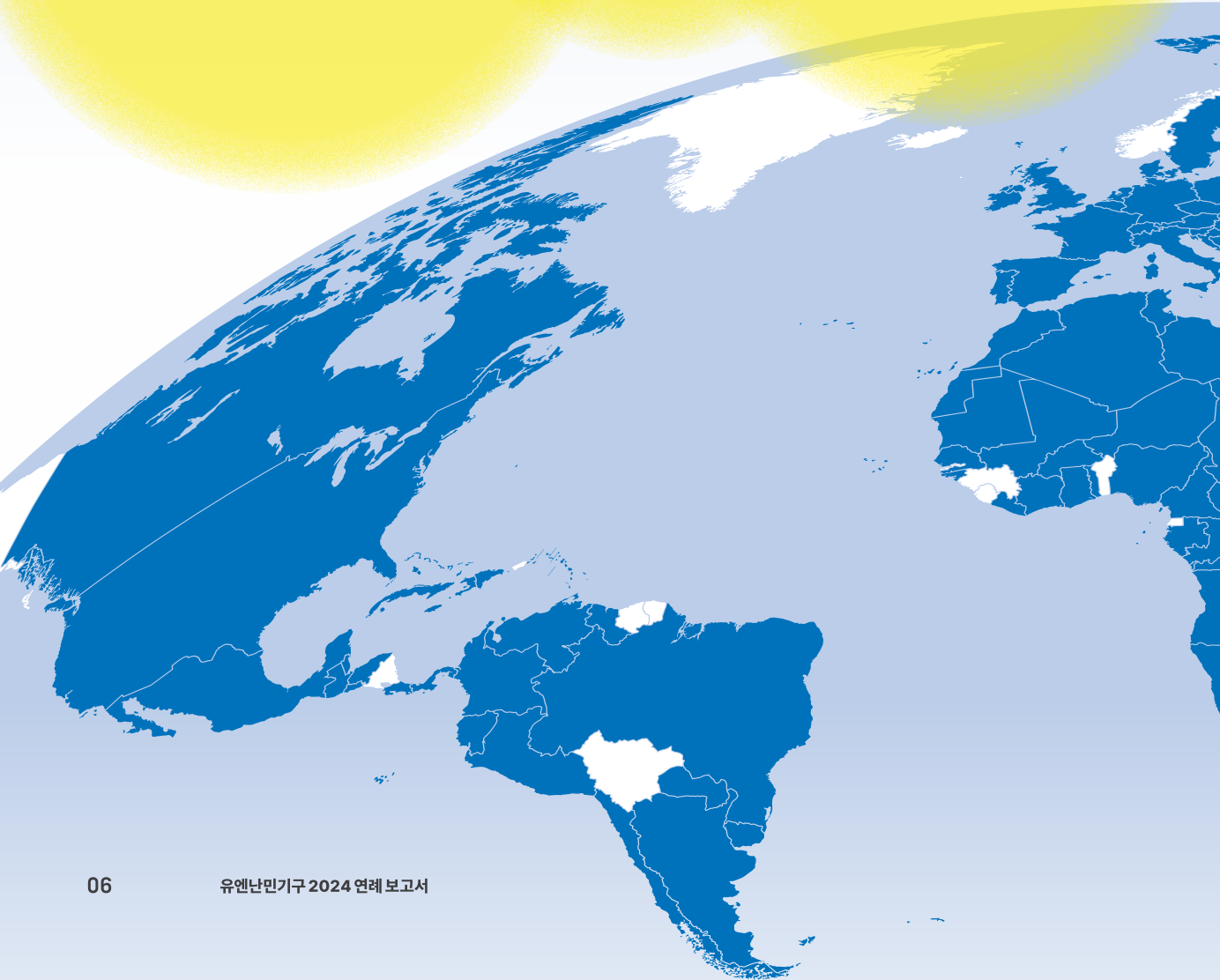
19,829명

활동 국가 및 지역

137개국

전 세계 사무소

522곳



2024년, 유엔난민기구는 137개국 522개 사무소에서 약 2만 명의 직원들이 활동하며 3,640만 명에게 도움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320만 명에 달하는 민간 영역 후원자는 이러한 활동의 든든한 동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전 세계 민간 영역 후원자 수

320만명

유엔난민기구가 도운 사람

3,640만명

유엔난민기구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1,840만명

2024년 12월 31일 기준
후원자 수 및 지원 인구는 집계치 기준
민간 영역 후원자 수는 개인 재단 기업 포함

소중한 후원으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

2024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강제실향민의 곁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여러분이 함께 만든,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UNHCR/Hameed Maarouf

샤하다 Shahada Al-Daais와 가족은 분쟁으로 인한 긴 피난 생활 끝에, 4년 전 고향 알레포 Aleppo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하며 돌아오길 꿈꿨지만, 오랜만에 마주한 집은 기억 속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비워둔 사이, 문과 창문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 시설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샤하다와 가족들은 문 대신 담요를 걸어두고 지내야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유엔난민기구는 샤하다의 집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위생 시설과 기타 필수 개선 사항을 포함한 주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도꼭지, 히터, 조명, 심지어 샤워 시설까지 설치해 주셨어요. 저희 힘만으로는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이에요.”

지붕 아래 따뜻한 일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건, 잊지 않고 보내주신 소중한 관심과 후원 덕분입니다.



© UNHCR/Hameed Maarouf



© UNHCR/Hameed Maarouf

주거 지원
우크라이나



© UNHCR/Elisabeth Arnsdorf Haslund

“다시 이 집에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로 75세가 된 비라 Vira와 미콜라 Mykola 부부는, 이 마을에 처음 정착했을 당시 지금의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함께 해온 이 집은, 두 사람에게 단순한 거처를 넘어 소중한 기억이 깃든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2월 시작된 전면전 이후 부부는 두 달 가까이 지하실에 몸을 숨기다, 결국 같은 해 4월 대피 명령이 내려지자, 딸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며칠 뒤 집이 포격으로 심하게 파손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을 임신했을 때 이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다시 무너진 벽을 고쳐야 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 힘에 부쳐 걱정이었지요.”

유엔난민기구는 미콜라 부부가 방수포와 비닐로 지붕과 창을 임시 수리하고, 수리비 지원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 2024년 겨울을 앞두고는 추가로 단열 보강도 지원해 부부는 이전보다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 UNHCR/Elisabeth Arnsdorf Haslund

2024년 유엔난민기구는
66개국에서 260만 명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주거 지원

66개국 **260** 만명





© UNHCR/Oleksii Barkov

교육 지원
우크라이나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Kharkiv)에서는 전쟁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단체와 함께 리세움 철도 학교의(Lyceum Railway school) 지하 방공호를 교실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약 30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학생들이 드디어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UNHCR/Oleksii Barkov



© UNHCR/Oleksii Barkov

“ 학교가 생겨서 정말 기뻐요. 드디어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돼서요. 이 학교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

개학만을 기다려온 다리야Dariya는 말합니다.



© UNHCR/Oleksii Barkov

개학만을 기다려온 다리야와 친구들

하르키우 지역은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으로, 많은 학교가 파괴되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하철역을 개조한 '메트로 학교'를 만든 데 이어, 6곳의 지하 학교를 신설·보수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하르키우 지역에서 약 2,500명의 어린이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UNHCR/Iryna Tymchyshyn

메트로 학교 수업 모습

2024년 유엔난민기구는
76개국에서 210만 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교육 지원
76개국 **210**만 명





© UNHCR/Vivian Toumeh

시리아 다마스쿠스 **Damascus** 외곽의 두마 **Douma** 출신인 이만 **Iman Al-Zahr**은 여섯 아이를 둔 어머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만은 남편, 자녀들과 함께 농장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2년 이만의 남편은 소사료를 구하러 나갔다가 검문소에서 붙잡힌 후 돌아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전쟁으로 아들까지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만은 두마를 떠나 다마스쿠스 외곽의 아탈 **Attal**로 피난해 옷 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월급은 월세와 식비를 내기에도 빠듯했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1년 전, 두마로 돌아온 이만이 마주한 건 폐허가 되어 버린 집이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불안 속에서도 이만은 포기하지 않고,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이만은 회상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만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 11월, 이만은 마침내 꿈꾸던 옷 가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 옷 가게를 갖는 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딸들을 키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누가 선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해줄 수 있어요.”



© UNHCR/Vivian Toumeh

“남편도, 아들도, 집도 잃었지만, 희망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금 지원
차드

수단 난민이자 여섯 아이의 어머니 라드와 압델카림 Radwa Abdelkarim Jarma 은 서부 다르푸르 Darfur의 엘 제이나나 El Geneina에서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 UNHCR/Ala Kheir



© UNHCR/Ala Kheir

“연료와 여러 물품을 팔기도 하고, 동네 상인들에게 도매로 물건을 넘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죠. 가진 돈도, 가족도, 이웃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 차드로 피난한 라드와는 이전의 사업 경험과 유엔난민기구의 현금 지원을 바탕으로 파르차나 Farchana 난민촌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난민촌 내에서 빵을 구워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라드와는 이제 난민 12명을 고용해 식료품점 두 곳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유이지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요. 상처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4년 유엔난민기구는 530만 명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했으며, 600만 명에게 비식량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현금 지원
530 만명



비식량 물품
600 만명



자립 및 생계 지원
요르단



© UNHCR/Shawkat Alharfoush

“보통 이 과정은 남자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저도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처음 실습할 때는 정말 떨렸지만, 한번 하고 나니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어떤 휴대전화든 고칠 수 있는 저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워요.”

마날은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의 최초 여성 휴대폰 수리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도전해 보라고요.”

시리아 출신의 마날 주마 Manal Jumaa가 안전을 찾아 요르단 자타리 Zaatari 난민촌에 도착한 것은 지난 2013년입니다. 난민촌에서 마날은 6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늘 고군분투했습니다. 남편이 페인트공으로 일했지만, 남편 혼자서 대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마날은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 블루몬트 Blumon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수리 교육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 UNHCR/Shawkat Alharfoush

2024년 유엔난민기구는 96개국에서 46만 9,400명에게 경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경제 자립 지원

96개국 **469,400** 명



법률 및 심리 지원
멕시코

밤 9시가 되면 지오바니(Giovanni Rotschild)는 배달 트럭에 올라 음료를 싣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지오바니는 아이티의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였습니다.



© UNHCR/Jeoffrey Guillemard

지오바니는 아이티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 2022년 멕시코시티에 왔습니다. 1년 동안 4개국을 거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을 때는 안도감과 막막함이 동시에 물려왔다고 지오바니는 회상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5년 또는 10년 후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저를 구해준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단체의 지원으로 지오바니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법률 및 심리 지원을 받으며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지원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가해 지금은 음료 제조·유통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하는 일이 본래 꿈과는 다르지만, 지오바니는 간호사로 다시 일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멕시코 간호사 자격 인증 절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UNHCR/Jeoffrey Guillemard

2024년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140만 명에게 법률 지원을, 88개국에서 심리·사회적 지원 120만 건을 제공했습니다

법률 지원

전 세계 140만 명



심리·사회적 지원

88개국 120만 건



2024년 강제 실항, 끝나지 않는 위기의 기록

1 JANUARY 미얀마



© UNHCR/Shari Nijman

2017년 라카인 Rakhine주에서 발생한 **군사 탄압으로** 약 65만 5,500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무력 충돌과 인권 침해는 계속되어, 2025년 3월 기준, 미얀마 내 국내실항민은 약 360만 명, 난민과 난민 신청자는 약 150만 명에 이릅니다.

3 MARCH 아프가니스탄



© UNHCR/Oxygen Empire Media Production

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덮친 폭우가 대규모 홍수로 이어지면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0,500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되거나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수만 명의 주민이 고립되었고, 농경지와 가축을 잃어 생계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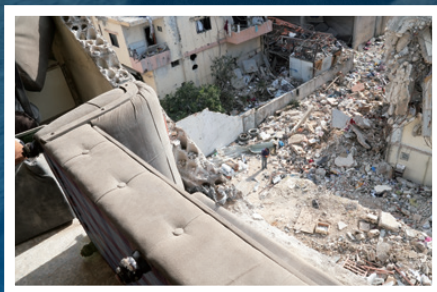
7 JULY 예멘



© UNHCR/YDF

사다 Sa'ada' 지역에 폭우와 우박이 쏟아진 데 이어, 8월에는 알마후트 AlMahweet 지역 댐 3개가 붕괴하며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6만 3천 가구가 이상이 막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9 SEPTEMBER 레바논



© UNHCR/Houssam Hariri

9월 23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레바논에서는 **120만 명 이상의 국내실항민이** 발생했습니다. 남부 지역 마을 40여 곳이 파괴되고 15,000채 이상의 건물이 훼손되어, 주민들은 인도적 지원 없는 일상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유엔난민기구는 26건의 신규 긴급구호 상황을 포함해 25개국에서 43건의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후 관련 긴급구호는 2023년보다 4배 늘어난 9건이었습니다. 기타 자연 재해부터 무력 분쟁까지, 2024년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UNHCR

5 MAY 동아프리카



© UNHCR/Bernard Ntwari

엘니뇨^{티Nino*}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가 동아프리카 전역을 강타해 부룬디, 에티오피아, 르완다,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등에서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포함한 370만 명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11 NOVEMBER 우크라이나



© UNHCR/Iryna Tymchyshtyn

1,0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끊이지 않는 폭격과 불안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인근 국가로 피난했습니다.

6월에 무너진 카호우카 댐^{Kakhovka Dam}의 여파로 식량 위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2 DECEMBER 시리아



© UNHCR

무장 단체의 공세로 시리아 정부가 붕괴하면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리아 인구의 90%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500만 명의 난민을 포함해 1,300만 명이상이 여전히 강제 실항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피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주요 긴급구호 활동 보고

© UNHCR/Shawkat Alharfoush



2024년 한 해 전 세계 물류 창고를
통해 조달한 긴급구호 물품

4,580

 만 달러

(한화 약 632억 원)

항공편 운송

267



육로 운송

4,890



해상 운송

4,534



중앙 조달 방식으로 지원한
물품 및 서비스 규모

2,939

 만 달러

(한화 약 4,057억 원)



수단

668,000명

깨끗한 식수 제공



브라질

308가구

임시거처 지원



미얀마

360,000명

핵심 구호 물품 전달



베네수엘라

온라인 안전 정보 웹페이지

100만 회 이상 조회



레바논

100,000명

분량 의료 물품 지원



서아프리카

260,000명

신분증 및 문서 재발급 지원



몽고민주공화국

35,000명

성 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지원



남수단

7.2km

제방 도로 건설 통한 재해 대응 지원



예멘

임시거처

12,000채 지원



시리아

114개

커뮤니티 센터 필수 서비스 제공



아프가니스탄

5,000가구

현금 지원



전 세계

엠폭스(MPOX) 대응 의료 인력

70명 교육 지원



© UNHCR/Oxygen Empire Media Production



© UNHCR/Ziyad Alhamadi



© UNHCR/Mohamed Maalim



© UNHCR/Ricardo Ara

긴급구호의 최전선에서

Stay and Deliver – 우리는 현장을 지킵니다

현장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체 인력의 90% 이상이 현장에서 근무하며, 위기 발생 72시간 이내, 긴급구호 조정관, 보호 담당관, 의료진, 엔지니어, 물류 전문가 등 3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최대 60만 명에게 긴급 구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긴급구호 전문 UN 기구입니다.

긴급구호는 유엔난민기구 임무의 본질입니다

긴급구호는 단순한 임시 대응이 아니라, 예측, 대비, 그리고 실행까지 이어지는 총체적인 과정입니다.

- 조기 경고 및 분석
- 고위험 국가대상 사전 대비
- 위기 발생 시 수시간 내 긴급구호 전문 인력 및 구호 물품 전 세계 파견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

국경을 넘자마자 난민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파란 조끼, 그것이 바로 유엔난민기구입니다. 긴급구호 발생 즉시 유엔난민기구는 현장을 지키며 아래와 같은 긴급구호 활동에 돌입합니다.

- 전 세계 물류 창고를 통한 임시거처 및 방수포, 물통, 주방 세트, 담요 등 핵심 구호 물품 확보 및 배포
- 응급 의료 및 영양 지원

“작은 물통 하나가 없어 아이들이 옹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게 되는 상황을 봅니다. 긴급구호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물품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사이먼 기르마 ^{Simon Girmaw} 긴급구호 담당관



© UNHCR



© UNHCR/Aymen Alfacil

복합 위기의 시대, 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4년, 유엔난민기구는 단일 원인이 아닌 여러 위기가 겹치는 복합 재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착할 지역은 안전한지, 수해 위험은 없는지, 물자 공급은 가능한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이먼 기르마 Simon Girmaw 긴급구호 담당관

유엔난민기구는 위기 상황에서의 전략 수립과 조율, 현장 실행까지 총괄하며, 복합적 재난에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를 넘어, 자립까지

긴급구호는 시작일 뿐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단기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tay and Deliver”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오늘도 위기의 한가운데에 남아,
가장 시급한 순간,
가장 필요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현장을 지킵니다.
Stay and Deliver



© UNHCR/BENJAMIN LOYSEAU



© UNHCR/B.Diab

여러분의 후원이 만든 변화



© UNHCR/Mohamed Maalim

유엔난민기구 기금의 99%는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됩니다. 유엔난민기구가 보호 활동, 임시거처 등
구호 물품 제공, 긴급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생계 지원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거처

유엔난민기구 로고에 새겨진 '보호손'을 아시나요? 기구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분쟁과 재난,
박해로 피난한 사람들을 감싸는 '보호손'처럼, 안전한 보호막인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임시거처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생존과 보호의 기반이자 일상 회복과 자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로고 내 '보호손'

지역과 문화에 따라, 임시거처도 달라집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 지역의 기후, 지형,
생활양식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임시거처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헬 지역처럼 덥고
건조한 곳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대형 천막형 주거지를,
중동처럼 모래바람이 강하고 겨울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단열 기능을 보완한 조립형
주택을 지원합니다. 비가 자주 오는 덥고 습한
방글라데시에는 통풍이 잘되고 물에 강한
대나무와 방수천이 포함된 임시거처 키트를
제공합니다.



긴급구호용 임시거처

임시/중장기용 거처

영구/반영구적 주택

텐트가 아니, 집다운 집으로

Before

한 가족이 무너진 집 앞 마당에 낡은 한 채를 다시 세웠습니다. 오랜 실항 끝에 귀환했지만, 집은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복구할 여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귀환'은 곧 '살 곳 없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 UNHCR/Hameed Maarouf

After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시리아 남부 이드리브 Idlib 탈메네스 Talmenes 마을 내 300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기반 주거 지원 Cash-for-Shelter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귀환민들은 자원받은 현금으로 창문, 출입문, 위생 시설, 벽체 등 필요한 부분을 직접 수리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원받은 안전한 임시거처에 머물며 '집다운 집'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UNHCR/Hameed Maarouf



핵심 구호 물품

먹을 것, 지낼 곳, 지켜야 할 삶의 터전까지 모두 잃은 채, 입고 있던 옷 한 벌만으로 피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매트리스, 담요, 방수 시트, 물통, 조리도구,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핵심 구호 물품 Core Relief Items, CRI 키트를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전달된
핵심 구호 물품 키트를
소개합니다



매트리스

차가운 바닥 위에서 보내는 밤, 가족이 함께 누워 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되어줍니다.



담요

일교차가 큰 지역의 밤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보호막입니다. 아이들이 얼어붙은 바닥에서 떨어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태양광 램프

전기가 닿지 않는 곳에서 작은 불빛은 곧 안전과 위안이 됩니다.



모기장

아열대 지역에서는 벌레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등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물통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식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먼 길을 걸어 물을 길러 가야 하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현금 지원

구호 물품이 아닌 현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금 지원은 난민을 돕는 데 있어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긴급구호 상황에서는 물품을 준비해 운송하고 배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현지의 기후, 문화, 생활 방식에 꼭 맞는 품목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현금 지원은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난민 스스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급되는 현금 대부분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난민들은 정착한 지역의 상점에서 생필품을 직접 구입하고, 다양한 필수 서비스의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금 지원,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후원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기준, 전 세계 100개국에서 530만 명 이상의 난민과 강제실항민에게 총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현금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지원금의 95%는 수혜자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받은 현금 지원 덕분에 임대료와 식비같이 꼭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조금씩 저축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굶지 않아도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여유도 생겼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 두 아이를 키우는 시리아 난민, 사라 Sara



교육 지원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아동의 초등 교육 진학률은 91%를 넘어서는 반면, 난민 아동의 경우 50%에 그쳐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인 대학 진학률은 난민 인구 중 7%에 불과하며, 유엔난민기구는 이 수치를 2030년까지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학생들이 초등 및 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 고등교육 지원 - 유엔난민기구의 파란 학사모 캠페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난민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파란 학사모' 캠페인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려는 난민 청년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전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등록금뿐 아니라 숙식비, 교통비, 교재비 등 학업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총 7,298명의 학생이 파란 학사모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 1,952명의 학생은 학업을 마치고 졸업했으며,

나머지 5,346명의 장학생은 2024-2025학년도 학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후원자님 여러분의 지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총 22명의 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미래가 보장된 듯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입 없이 살아왔지만, 이 장학금 덕분에 등록금은 물론 교통비, 실험실 가운 같은 학업에 필요한 비용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 장학금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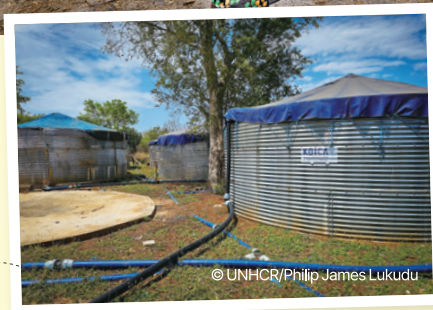
- 바툴 Batool, 파란 학사모 장학생



물과 위생 지원

남수단: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된 태양광 급수시설,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잇다

남수단 마반 Maban 난민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치된 태양광 급수시설이 꾸준히 유지·관리되며, 지역 주민과 난민 가정에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물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자원을 넘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잇는 시작점이 되어, 난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공존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줄기 아래에서 웃고, 여성들은 다목적 물통에 물을 담으며 마을 소식을 나눕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치된 태양광 급수시설

여러분의 변함없는 후원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지금도 전 세계 난민과 강제실항민 곁을 지키며, 그들이 다시 삶의 희망과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해 주세요.

한국대표부 주요 활동

1월



사막여우 키링 캠페인 런칭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23년 12월, 용기와 보호, 행운을 상징하는 사막여우를 활용한 디지털 후원 캠페인을 런칭하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튀르키예로 피난한 시리아 난민 어머니들이 직접 손으로 제작한 사막여우 키링을 후원자들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로, 단순한 굿즈를 넘어 난민 자립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선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막여우는 한국대표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홍보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난민기구를 통한 비지정 기여 확대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발표한 '양질의 기여 확대' 공약에 따라, 유엔난민기구에 1,800만 달러를 비지정 기여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비지정 기여는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대한민국은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강제실향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



KOICA 업무협약 체결

2024년 4월 4일, 유엔난민기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분쟁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의 뿔 지역 등 장기화된 난민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거주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월



제9회 난민영화제 개최

2024년 6월 22일,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제9회 난민영화제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오늘의 나, 내일의 우리'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난민기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청년>을 포함해 총 4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GV 세션을 통해 관객들과 난민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천공항 난민지원 공익활동 사례발표회

2024년 6월, 유엔난민기구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공항 내 난민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익 활동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조계,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난민 보호 및 조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종교청년 평화학교 공동 주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서울평화교육센터와 함께 '2024 종교청년 평화학교'를 7월 8일부터 13일까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KCRP 7개 종단의 청년들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에서의 국내 교육과 태국 방콕에서의 현장 방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 난민 아동 교육 참여, 태국 난민촌 방문, 전해경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 면담,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 면담 등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교부 주최 국제기구 커리어페어 참석

2024년 7월, 오아나 운구레아누 Oana Ungureanu 유엔난민기구 본부 인사국 채용과장이 서울, 인천 송도, 부산에서 열린 제17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유엔난민기구 채용 절차, 인사 제도, 국제기구 진출 관련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하였습니다.

11월



기술난민제도 국제 포럼 개최

202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주한 캐나다대사관, 난민연구네트워크 등과 함께 기술난민제도 국내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해외 사례와 난민 당사자 발표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 협력을 통한 보충적 경로 확대와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2월



한국 JTS 방글라데시 난민촌 비누 기부 및 전달식 진행

한국 JTS Join Together Society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가 난민촌에 총 6,360,000개의 비누를 세 차례에 걸쳐 기부하기로 하고, 12월 현장에서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약 33억 원 규모의 이번 기부는 난민촌 내 위생 개선과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며, 국내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인도주의 연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성통상 탐텐 파트너십 협약 체결

2024년 12월, 신성통상 패션 브랜드 탐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물-현금 기부, 공익 연계 마케팅, 난민 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 보호 활동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난민 채용을 포함해 국내 사회 통합과 자립까지 지원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입니다.



겨울 캠페인: 겨울 한가운데서 전해진 따뜻한 마음

유엔난민기구는 매년 겨울, 혹한 속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난겨울에도 3,834명의 후원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몰도바 등 겨울이 혹독한 지역의 난민들에게 담요, 매트리스, 난방 연료, 주택 수리 키트, 생계비 등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연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의 참석

2024년 12월 개최된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6th Action with Women and Peace"에 전해경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전 본부장은 '미얀마 분쟁 속 여성'을 주제로 강제실향 상황 속 여성들의 회복력과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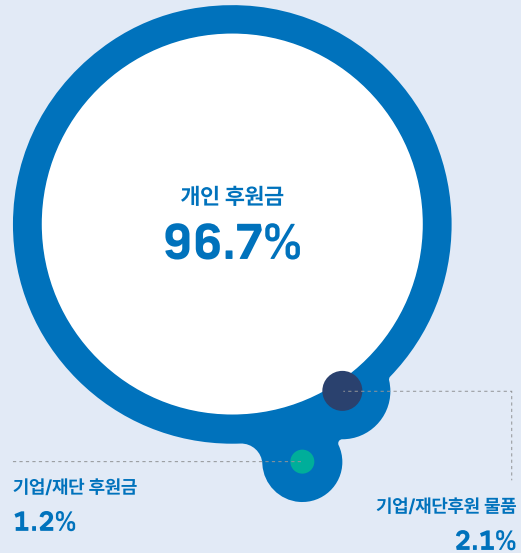
한국대표부 재정 보고

수입

2024년에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정부와 민간에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더욱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부문에서 원화 총 56,757,804,587원을 조성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화 66,709,729달러를 조성했습니다.

● 민간후원금	금액: 한화 원	비율(%)
▪ 개인 후원금	54,876,988,933	96.7
▪ 기업/재단 후원금	692,595,402	1.2
▪ 기업/재단 후원 물품	1,188,220,252	2.1
합계	56,757,804,587	100.0

● 정부후원금	금액: 미화 달러	비율(%)
▪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66,709,729	100.0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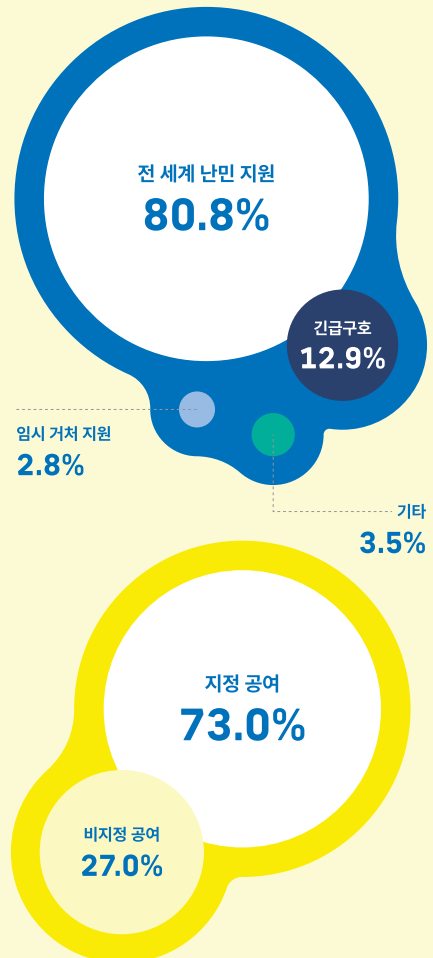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다음 달 제네바 본부로 전액 송금하며, 한국대표부의 운영 예산은 후원금이 아닌 별도로 책정된 행정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한국대표부는 2024년 전체 지출의 80.8% 이상을 전 세계 난민 보호 현장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했고, 12.9%를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 민간후원금	금액: 한화 원	비율(%)
▪ 전 세계 난민 지원(가장 필요한 곳에)	45,882,171,124	80.8
▪ 긴급구호	7,314,078,712	12.9
우크라이나	3,698,232,124	6.5
시리아	2,030,443,991	3.6
전 세계	725,072,871	1.3
코로나-19	285,349,000	0.5
아프가니스탄	194,781,200	0.3
튀르키예-시리아	170,814,000	0.3
레바논	88,039,126	0.2
미얀마	45,470,000	0.1
수단	24,949,000	0.0
로힝야(인도네시아)	24,496,500	0.0
동아프리카	9,220,000	0.0
인도네시아	6,710,000	0.0
로힝야	5,310,000	0.0
리비아 홍수	4,369,300	0.0
아르메니아	491,600	0.0
파키스탄 홍수	330,000	0.0
▪ 임시 거처 지원(셸터 캠페인)	1,566,742,958	2.8
전 세계	1,560,426,958	2.7
우간다	6,316,000	0.0
▪ 기타	1,994,811,793	3.5
난민 겨울 대비 지원	355,203,541	0.6
케냐 난민촌	144,434,000	0.3
난민 고등교육 장학금	121,398,000	0.2
동아프리카 식량 지원	106,330,000	0.2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촌	70,990,000	0.1
나인밀리언 캠페인	4,396,000	0.0
아프간 어린이 난민 교육	3,840,000	0.0
로힝야(방글라데시)	1,188,220,252	2.1
합계	56,757,804,587	100.0

● 정부후원금	금액: 미화 달러	비율(%)
▪ 지정 공여 *	48,626,562	73.0
▪ 비지정 공여 **	18,083,167	27.0
합계	66,709,729	100.0

*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추가 대응 사업 등

**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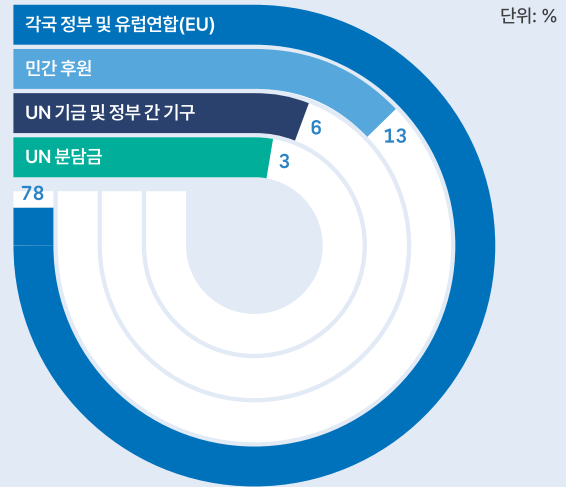
글로벌 재정 보고

수입

유엔난민기구의 수입은 대부분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됩니다. 2024년 수입은 약 48억 7,593만 달러였고, 수입의 약 78%는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에서, 약 13%는 개인과 기업, 재단 등 민간 영역에서, 6%는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에서 조성했습니다. UN 본부로부터 한 해 활동을 위해 지원받은 UN 분담금 조성 수입은 3%였습니다.

● 민간후원금	금액: 미화 달러
▪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	3,805,755,498
▪ 민간 후원	629,884,271
▪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	275,463,061
▪ UN 분담금	164,830,059
2024년 수입	4,875,932,889
2024년 총 가용 기금*	5,178,053,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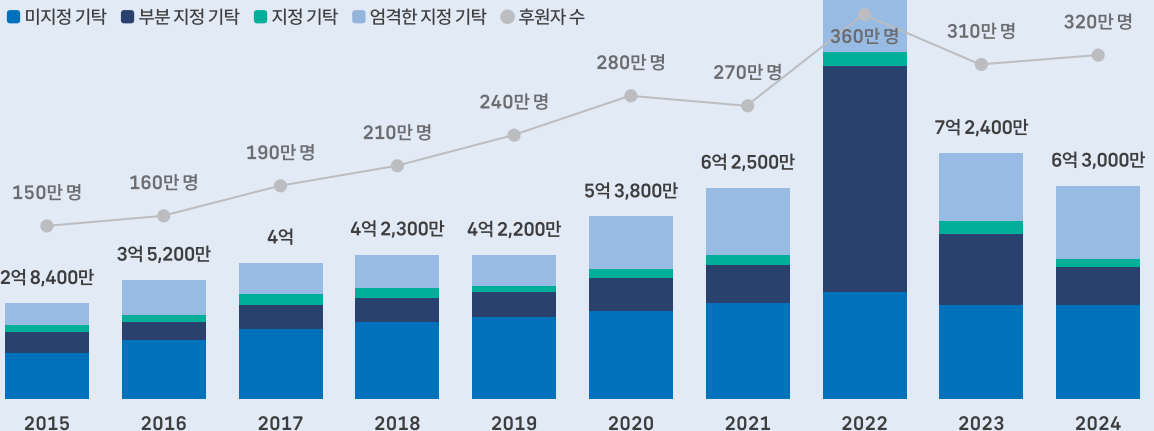
* 2023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의 순이익 포함



민간 후원

2024년에 개인 포함 민간 영역의 자발적 후원금은 약 6억 3,000만 달러로 유엔난민기구 전체 수입의 약 13%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약 3억 6,100만 달러는 전 세계 320만 명의 개인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이며, 약 2억 6,900만 달러는 기업, 재단,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민간 후원금 중 44%가 미지정 기탁으로 후원되어 기구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민간 부분 기여 및 후원자 수(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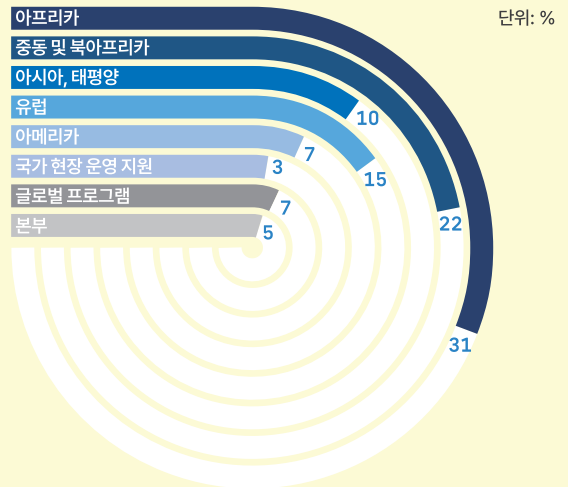
지출

2024년 지출은 4.5% 감소한 49억 3,25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업 이행률은 2023년의 90.4%보다 높은 95%를 기록했습니다.

금액: 미화 달러

■ 아프리카	1,558,603,952
■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90,007,192
■ 아시아, 태평양	478,281,264
■ 유럽	731,652,877
■ 아메리카	369,535,086
■ 국가 현장 운영 지원	125,854,787
■ 글로벌 프로그램	327,758,342
■ 본부	242,464,060
■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프로그램)	8,393,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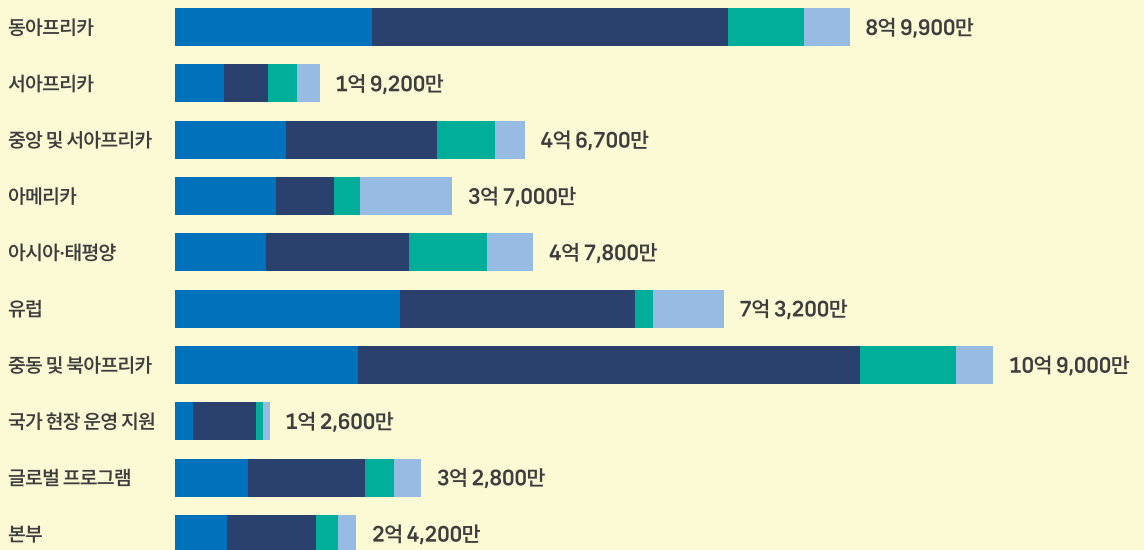
* 2023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의 순이익 포함



2024 지역 및 임팩트 분야별 지출

단위: 미화 달러

■ 보호 ■ 대응 ■ 역량 강화 ■ 해결책 마련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전체 직원의 약 **90%**가
전 세계 난민 구호 현장의 최전선에서
난민 보호

1950년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
75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난민과
강제실향민의 생명과 권리 보호



위기 발생 **72시간 이내**
최대 60만 명에게 긴급구호
제공 역량



유엔난민기구는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의 원칙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익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사용



맞춤형 **ESG 솔루션** 제공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 및
개인, 기업, 재단, 종교계, 스포츠계 등
민간 영역과 협력

마음을 나누는 네 가지 방법

1

온라인에서
만나요

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전 세계 강제실향 현황, 다양한 스토리, 후원 방법 및 나의 후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unhcr.org/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난민 보호 활동과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참여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2

거리에서
만나요

유엔난민기구는 거리 모금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난민 보호 활동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엄격한 기준과 교육을 받은 캠페이너들이 파란 조끼를 착용하고 활동합니다. 길 위에서 마주친 유엔난민기구 캠페이너와의 짧은 대화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

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법,

MADE51

MADE51은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글로벌 수공예 브랜드로, 전 세계 난민 장인이 만든 수공예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신 국가의 전통과 손기술을 담아 정성으로 만든 제품 구매를 통해 난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MADE51 제품을 후원자 굿즈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MADE51 홈페이지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제힘으로 여섯 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 파르ween Parween, MADE51 참여 장인



유엔난민기구 후원하기

계좌이체 국민은행 407537-01-004288 (예금주: 유엔난민기구)

후원 문의 withyou@unhcr.or.kr / 02-773-7272

4

기업·재단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연대

유엔난민기구는 기업 및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후원을 넘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기후 위기, 교육, 여성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ESG 전략과 유엔난민기구의 현장 경험이 만날 때, 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대표 파트너십 사례

- 이케아 재단: 임시 조립 주택 및 태양광 조명 기부, 난민 대상 일자리 지원
- 보다폰 재단: 난민 아동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Instant Network Schools)
- 마이크로소프트: 난민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난민은 디지털 교육 혜택에서 가장 배제되어 있는 이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솔루션에 참여할 것입니다.”

- 마리 스냅 ^{Mary Snapp}, 마이크로소프트 사회공헌 총괄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 활동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카타르 항공의 강력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엔난민기구의 위대한 대의에 함께합니다. 우리는 함께 변화를 만들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 아크바르 알 바케르 ^{Akbar Al Baker}, 카타르항공 최고경영자

파트너십 그룹



파트너십 브로슈어



유엔난민기구와의 파트너십은

지속 가능한 환경 / 사회적 포용 /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행동입니다.

파트너십 관련 문의 partner@unhcr.or.kr / 02-2079-8943~4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사막여우 키템

어린 왕자 곁을 지킨 사막여우처럼
전 세계 위기의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사막여우 키템

내 가방에 단 작은 사막여우 키템 하나,
그 작은 행동이 전쟁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됩니다.



피난한 시리아 난민 엄마들이 대한민국 후원자들만을 위해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펴서 만드는 특별한 키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하루에 단 2개만 만들어진다!



캠페인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고,
아이들을 지켜낸 증표, 사막여우 키템을 함께 달아주세요!

더 나은 연례 보고서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벤트 기간 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유엔난민기구 **사막여우 캐릭터 굿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후 링크로 들어가서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영문 연례 보고서 바로가기



홈페이지 unhcr.org/kr
 전화 02-773-7272
 이메일 withyou@unhcr.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14층(소공동, OCI빌딩)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Print using soy ink — 유엔난민기구는 환경보호를 위해 콩기름 잉크를 사용합니다.

